新生 - 1931. 04. 01.

쏘크라테쓰의 辯明(풀라토 對話篇)(2)

柳瀅基

쏘 『멜레토쓰君 善良한 市民가운데서 사는 것이 좋은가 邪惡한 市民가운데서 사는 것이 좋은가?……착한 이는 이웃을 有益케하고 惡한이는 그 이웃을 害롭게 하는 것이 事實이 아닌가?』

멜 『勿論』

쏘 『그러면 世上에는 이웃에게 有益보다 害를 받으려는 이가 많은가?』

멜 『千萬에!』

쏘 『그러면 靑年을 腐敗케하는 惡한 사람이라 하여 나를 告發하는 君은 내가 故意로 그리한다고 생각하는가 혹 不知中에 한다고 생각하는가?』

멜 『勿論故意』

쏘 『착한 이는 그 이웃을 利롭게하고 惡한이는 그 이웃을 害롭게 한다고 君이 말하엿다. 그러면 君같이 젊은이가 그 眞理를 깨달음에도 不拘하고 七十이 지난 내가 아직까지도 그러한 眞理를 깨닷지 못학 진즛 남을 腐敗시키어 스스로 禍害를 만든다는 말이지! 아 멜레토쓰君 이러한 論法은 아무도 說服시킬수없다.……만일 내가 그 만한 것을 아지 못하는 愚者로 생각하엿으면 君이 私私로히 나를 請하여 勸하엿을것이다. ……그러나 訓戒보담 處罰을하는 이 法廷에 나를 告發한 것은 君의 惡意, 君의 邪言을 明示한다』

쏘 『내가 靑年을 腐敗케 한다니 무슨 方法으로 그들을 腐敗케하는가? 君의 訴狀과 같이 내가 國神을 否認하고 새 神을믿으며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靑年들을 腐敗케한다고 主張하는가?』

멜 『그럿소』

쏘 『그러면 君의 主張은 내가 國神은 否認하나마 새로운 神들을 信奉한다는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無神論者로 無神論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멜 『당신은 無神論者라는 말이요』

쏘 『남돌이 다믿는 日神, 月神을 내가 믿지 아니한다는 말인가』

멜 『神께盟誓하노니 君은 해를 돌이라 하며 달을 흙이라 한다』

쏘 『하하 君은 아낙싸고라쓰를 告發하네그려.……그런學說은 그의 冊에서

나온것일세. 여긔 앉은 裁判官들이 그만한 常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멜 『何如間 당신은 無神論者요』

쏘 『(이하해독불가) 는 새 神을 믿는다고 하고 이제는 믿지 않는다하니 그는 다만 矛盾되는 이야기뿐이 아닌가?…… 멜레토쓰君 世上에 사람의 事業은 認識하면서도 人生은 否認하거나 馬는 否認하면서 馬業은 是認하거나 피리 부는 것은 是認하면서 피리부는 者를 否認하는 일이 잇는가?……世上에 神의 攝理는 믿으면서도 神의 存在는 믿지 아니할 이가 잇을가?』

멜 『그런 이는 한사람도 없겟지오』

쏘 『君의 입에서 그 對答을 끄을어 내는 것을 나는 깃버하네. 君의 訴狀을 보면 나는 새 神들을 믿고 가르친다 하엿으니 나를 無神論者라고 告發할 수 없는 것은 事實이며……또한 精靈들과 小神들은 神의 子弟들이라 하여도 可하겟지?』

멜 『그렇지오』

쏘 『……神들은 否認하고 精靈과 小神들은 是認한다하니 그는 벌서 말한 바와 같이 逆說이다. ……이러한 沒常識한말은 세울 수가 없다.……君이 이러한 不徹底한 理由로 나를 告發하는 것은 그 理由의 不充分을 明示하는것이다. 같은 사람으로 神의 存在는 否認하고 神의 攝理는 承認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덴人諸君 나는 멜레토쓰一派의 告訴하는 따위의 罪過가 없다는 것은 分明하나……나를 못살게 하는 것은 멜레토쓰一派가 아니오. 오히려 多數의 誹謗과 猜忌니 그것은 벌서 多數의 善人을 못살게 하엿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니 네가 그 最後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혹이 『쏘크라테쓰君 君은 不時의 죽엄을 당할런지도 모르니 스스로 붂으럽지 않으냐』고 말할지도 모르나 나의 對答은 『君은 誤解다. 무슨 일을 할 수 잇는 사람은 死生을 念慮치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바른가 바르지 아니한가를 생각할 것뿐이다. ……그럼으로 그는 죽엄이나 다른 것을 念慮치 아니하고 다만 恥辱을 무서월할 뿐이다』

아덴人諸君……이제만일 죽엄을 두려워하여 神의 命令인 哲學者의 使命을 履行치 아니한다면 그야말로 陋劣至極한 사람이 될 것이니……죽엄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는 척하는 이들의 하는 일이다. ……죽엄이란 것이 人生의 最大惡이람보다 最上善인지도 아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을 무서워 한다는 것은 無知莫甚이다.……나는 下界의 일은 아지도 못하며 아는 척 아니 한다. ……이제 만일 나의 裁判官들이 날더러 『쏘크라테쓰君 우리는 그대를 告發하는 이들의 告訴를 믿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條件을 붙이어 당신을 放免할터

이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吟味하는 일과 智慧를 要求하는 일을 그만두시오. 萬一 앞으로 또 하다가 잡히면 우리는 곳 당신에게 死刑을 宣告하겟소』하면 나의 對答은 『나는 諸君을 尊重하나 그러나 諸君을 順從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神을 順從할것이며 내가 살아 잇을 동안은 哲學 가르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겟다』할 것이다.……적어도 아덴의 人으로 靈魂을 向上시키는 智慧와 眞理를 輕히 여기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나는 神을 奉仕하는것으로써 이 아덴城에 無限한 幸福을 끼치는 것이니……나는 이리저리 다니며 老少를 勿論하고 맞나는 이마다 個人이나 그 所有를 위하여 念慮하기 前에 먼저 靈魂의 最高向上을 力說한다. 德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나 돈과 모든 좋은 것은 德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니 이러한 敎訓이 靑年을 腐敗케 한다면 무엇이 그들을 向上시킬것이냐……何如間 나는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 여러번 죽고 또 죽는다 하드라도 이 가르침은 中止할 수 없다는 것만은 確實히 알아주기를 바라오.

아덴人諸君……만일 나 같은 사람을 죽인다면 諸君이 나를 害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諸君自身을 더욱 害롭게 하는 것인 줄이나 아러 주기를 바라오. 또한 나를 告發하는 者들도 나를 害롭게 할 수 없는 것이니 惡한 者가 善한 사람을 害하는 方法이 없는 까닭이다. ……나는 나自身보다 諸君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니 諸君은 神이보내신 쏘크라테쓰를 죽임으로써 神이 諸君에게 주신 賜物에 對하여 犯罪치 말라고 警告한다. 諸君이 만일 나를 죽이면 나와 같은 이를 또 求하기가 어려울 터이니 나는 말하자면 神이 아덴城에 보내주신 소파리(牛蠅, 虻)格이요. 아덴城은 偉大한 軍馬같으니 이 軍馬가 느리거나 졸지 않기 위하여 神께서 소파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一生동안을 하로 같이 돌아다니며 老少를 勿論하고 맞나는 대로 警醒시키며 說服시키고 批評하여주는것으로써 今日에 이르럿으니 諸君은 나 같은 사람은 아러 주어야 할 것이다. ……나이 七十이 되기까지 家事나 個人의 일은 一切 돌아보지 아니하고 諸君을 위하여 가르치고 도아준 나를 諸君이 붂으러움 없이 告訴한다는 것은 人事가 아니니 내가 아덴人諸君을 위하여 犧牲을 하엿다는 것은 나의 赤貧이 證據하는 바가 아닌가?

이제 諸君가운데는『그러면 쏘크라테쓰는 어찌하여 個人을 찾아다니며 忠告하는 것으로써 業을 삼고 國家에 獻策하는 것은 생각지 아니하엿나』할이도 잇을 것이나……諸君 내가 만일 政治에 投身하엿던덜 나의 목숨은 벌서 한 옛적에 잃어 젓을 것이다. 그리 되엇다면 나自身이나 諸君을 위하여 아무 秘益도 없엇을 것이 아닌가?……正義를 위하여 싸우려는 이는 비록 暫間동안이라도 살아 活動하려면 반듯이 政界를 떠나 私人의 生活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죽엄을 두려워하여 正義를 버리고 不義를 할 수 없는 것이나 正義를 따라 나아가면 不久에 生命을 잃을 것은……平生에 한번 벼슬로 叅政院議員노릇을할 때 親히 體驗한바다.

諸君 내가 萬一 政治에 投身하고 善한 사람의 맛당이 할 바를 하며 正義를 위하여 싸웟다 하면 이와 같이 七十有餘年을 無事히 지나왓으리라고 생각인들 할 수 잇는가?……나는 平生을 通하여 오직 한 가지 德을 가르치기에 努力하엿으나 그러나 나에게는 一定한 學生도 더 없다. 貧富나 老少를 勿論하고 누구 나다 나에게 自由로 質問하며 自由로 討論하엿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이가 나아가 世上을 有益케하거나 害롭게 한다 하여 그 責任을 나에게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니 나는 아모에게도 授業을 約束한일이 없은 까닭이다.……

諸君中 혹 뭇기를『오래 동안 당신으로 더부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이냐』하면『저 이들은 내가 所謂智慧로운척하는 者들을 붇잡고 吟味하며 批評하는것을 傍聽하기를 좋아하는 까닭이라』고 나는 對答할 것이니 그야말로 決코 不愉快한일은 아니다. 나로 보아서는 그것이 내가 神에게서 받은 使命인 까닭이다. ……만일 내가 事實로 靑年을 腐敗케하며 또한 나로 인하여 腐敗한 靑年이 잇다하면……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나 나를 告發하여야 될 것이다. 만일 自己自身으로 나를 告發키를 즐기지 않는다면 나로 인하여 腐敗된 靑年들의 父兄이나 親戚이라도 여기서 나를 復□ 하여야 될 것이다. ……이 자리에는 나에게 이야기를 드른 이들이 多數叅席하엿다……크라이토, 그의 令恩크리토불러쓰, 리사니아쓰, 안틔폰, 니코스트라터쓰, 파라러쓰, 아데만터쓰, 풀라토, 에안토도러쓰 等이 이 자리에 앉아잇으며 그밖에도 多數다……그러나 저들은 다 나를 援助하고잇다. 그것은 무슨 事實을 證明하는가? 저 이들은 나를 告發하는 멜레토쓰는 거즛을 말하고 나는 眞理를 말한다는 것을 確實히 아는 까닭뿐이다.

諸君 이만하면 나의 辯明은 充分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혹 이 가운데 自己의 態度를 돌아보고 나에게 대하여 不快한 생각을 가질 이가 잇을런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이보다 퍽 輕한 訴訟事件에도 눈물을 흘리며 法官에게 嘆願을 하는 一方 同情心을 일으키기 위하여 妻子, 親戚, 友人들을 法廷에 불러 드릴 터인데 나는 生命이 危險한 告訴임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일을 아니한다하여 혹 不快히 생각할 이가 잇을 것이다……만일 그러한 이가 잇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려 한다.『親舊여 나도 사람이다. 호머-의 말과 같이 나도 나무나 돌로 된 무엇이 아니오. 살과 피로된 사람이다. 나도 妻子가잇

다. 三男中 長男은 長成하엿으나 二男兒는 아직도 어리다. 그러나 나는 諸君에게 無罪放免의 投票를 哀願하고저하여 나의 妻子를 이리로 끄을어 오지 아니한다. 그 까닭은 諸君을 尊敬치 아니한담 보다……나自身과 諸君에게 도리어 不名譽가 되는 까닭이다. 나이가 七十이지나고 또한 어찌 되엇든 智者의 이름을 가진 나로써 그렇듯 卑怯한 態度를 取할 수는 없는 것이다. 世上에는 내가 凡人以上의 智慧를 가젓다는 正評이잇다. 그러한 사람으로 卑怯한 行動을 取한다면 그 얼마나 붂으러워할 일인가?……죽엄을 무서워하여 그러한 態度를 取하다면 婦女들 보다 낳을 것이 무엇이냐?……

그뿐 아니라 裁判官에게 哀願하여 赦罪함을 받는 것은 不正한 일이니……裁判官은 마음대로 公正을 굽히는 것이 아니오. 公正에 準하여 裁判하는 것이다. ……諸君 나는 나를 告發하는 者들中 누구보다도 굳게 神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에게나 諸君에게 한갈 같이 가장 좋도록 判決하여 달라는 것을 諸君과 神에게 맡기어버린다.

(裁判官投票有罪決定)